

아옹반 주일학교 장소



울퉁 불퉁한 바닥



뜨거운 태양과 눈부신 햇살



주일학교 어린이들이 교회에 오면 장소가 비좁아서 건물 밖을 사용해야 하는데
 바닥공사가 이루어지지 못해서 울퉁불퉁한 모습입니다.
 넘어지면 다치기 쉽고, 그늘이 없어서 활동이 어려운 공간입니다.
 우기가 되면 비좁은 공간에 식사할 장소도 없었습니다.



**태장 장로교회 성도님들의 사랑으로
 주일학교 장소가 변신하려 합니다.**



멋지게 변신 중



2024년 11월 아웅반 소식



밍글라바~

주 안에서 존경하는 남장현 위임목사님과 사랑하는 태장장로교회 성도님들께 문안드립니다. 한국은 완연한 가을이 되었겠네요. 푸른 숲과 어울어진 색색의 단풍이 물들어가는 자연을 보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해외에 나와보면 한국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새삼 느끼게 됩니다.

이곳 미얀마 산주는 호우로 인한 아픔을 잘 딛고 일어서서 일상으로 돌아간 모습입니다. 어찌보면 살아지기에 사는 삶일 수도 있겠습니다. 다시금 살아내기 위해 팔을 걷어 붙인 이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들이 살아갈 이유인 주님을 만나서 살아지는 삶이 아니라 살아가는 삶으로 바뀌게 하소서.

저희 센터에는 지금 주일학교와 주중 모임을 위해 신나게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바닥 공사가 이루어지지 못해서 흙먼지와 다칠 위험도 있었습니다. 또한 좁은 교회 공간에서는 활동이 제한이 많았습니다. 마당은 강렬한 햇빛 때문에 잠깐만 서 있어도 땀이 줄줄...

이번에 태장장로교회 성도님들께서 큰 사랑으로 선교비를 보내주셔서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요. 이제는 비가 와도 뜨거운 태양이 내려죄도 걱정이 없도록 멋진 변신을 하기 위해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바닥 공사, 지붕 확장 공사, 전기 공사, 뒷문)

기쁜 소식을 하루라도 빨리 전하려고 이렇게 편지를 띄웁니다. 성도님들의 기도가 새벽마다 전해져서 예쁜 꽃들과 아웅반의 천사같은 아이들이 잘 자라고 있습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M국 아웅반에서 강범수,이혜진 선교사) 드림